

코인 민심 겨냥... 李 “법제화” vs 尹 “5000만원 비과세”

이재명 증권형 토큰 발행하고 가상자산 법률 제정해 법제화
윤석열 투자자 보호 포커스 디지털자산진흥청 설립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압바트 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게이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같은 날(19일)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며 ‘코인 민심’을 잡기 위해 도전장을 내밀었다. 가상자산 시장은 ‘코인 열풍’에 힘입어 최근 몇 년 간 20·30세대의 새로운 투자처로 떠올랐으나 정부의 산업 육성 지원제도와 투자자 보호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두 후보는 가상자산 산업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정부가 거래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다만 이 후보는 산업 육성을 위해 증권형 토큰 발행 및 공개 검토를, 윤 후보는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과 거래소 발행(IEO) 방식을 통한 가상화폐공개(ICO) 허용을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강남구 역삼동 압바트 사옥에서 4대 거래소 대표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는 않는다”며 “피할 수 없다면 앞서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법

제도를 발 빠르게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견고하게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 가상자산 시장을 법제화하고 암호화폐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자금을 모으는 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을 ICO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이 후보는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ST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증권형 토큰은 주식·채권·부동산·예술품·저작권 등 실물 자산에 대한 지분 권리를 토큰으로 연계한 방식이다. 증

권형 토큰 투자자는 토큰 발행사가 창출한 이익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다.

윤석열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윤 후보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자산 투자 보호’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 분야만큼은 규제 걱정 없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발현되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구체적으로 “코인 수익을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겠다”며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先) 정비 후(後)

과세 원칙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코인 수익에 대한 면세점을 주식과 같은 5000만원으로 할지에 대해 고민이 있다며 확답을 피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코인 부당거래 수익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디지털자산진흥청을 설립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정책을 실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ICO에 대해서도 전면 채택 시 부작용을 고려해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코인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국민의힘 선대본에 따르면 거

래소가 중개인이 돼 프로젝트와 투자자 사이에서 검증자와 중개의 역할만 담당해 거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가상자산 시장이 상징하는 디지털 금융 대전환을 두 대선 후보가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환영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19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증권형 토큰은 자산의 성격과 목적이 일반 디지털 자산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의 정책 플랫폼에서 발행하고 유통돼야 한다”며 “증권형 토큰이 부동산 기반 혹은 중소기업이 가진 산업적 기반일 경우 실물 시장을 교란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코인 수익을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가상자산을 기타 또는 금융소득으로 분류할지 먼저 결정돼야 한다”며 “과세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과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고 IEO도 현재 거래소 중심의 불균형한 가상 자산 유통 시장이 이뤄져 있는 상황에서 거래소가 발행 시장마저 장악하는 구도가 바람직할까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고승범 “자영업자 일시상환 부담 없도록 안전장치 마련”

(금융위원장)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3월 종료 “MRI 찍듯 맞춤형 대책 검토할 것”

“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 등과 같은 금융지원 방식은 근원적 해결방식이 아니다. 3월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한꺼번에 채무상환 부담이 가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3월 종료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회관에서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가 ‘자영업 위기’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 4월부터 대출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조치를 시행했다. 당초 2020년 9월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지금까지 3차례 연장됐다. 지금까지 대출만기연장을 지원한 금액은 258조2000억원, 원금유예 금액은 13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날 고 위원장은 이러한 금융지원은 근원적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적극적 유동성 지원으로 자금애로 해소에는 도움이 되었겠지만, 사실상 자영업자가 상환해야 할 빚은 늘어나게 됐다”며 “상환여력이 낮아진 잠재부실 채권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면 금융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 위원장은 자영업자의 업황 개선이 지연되는 것과 금리인상 등의 환경변화가 맞물릴 경우 금융애로는 더욱 확장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대출 중 일시상환비중은 45.6%, 1년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70%에 달한다. 국내 외 금리인상과 미국의 조기테이퍼링, 중국의 경제둔화 등의 경제상황과 맞물릴 경우 자영업 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되면서 자영업자의 금융애로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고 위원장은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자영업자들이 정상화과정에서 일시상환 부담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현재 금융감독원 등과 자영업자의 경영·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금융연구원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

재무상황을 MRI찍듯이 미리 분석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선제적 채무조정제도도 시행한다. 고 위원장은 “잠재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선제적 채무조정 등을 시행해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출상환 부담을 이유로 폐업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상환부담으로 폐업을 했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있거나, 폐업을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폐업을 하지 않는 자영업자들이 원활히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 위원장은 신라젠 상장 폐지로 인해 발생한 소액주주 피해에 대해 “코스닥상장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돼 있다”며 “최종결정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8일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지난 2020년말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17만4000명으로, 지분율은 92.6%이다.

/나유리 기자 yu115@

온·오프라인 맞춤형 개인쇼핑몰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나만의 맞춤형 개인 쇼핑몰 제공 평생 수익 창출

200여개 홍삼제품 +3만여개 인기상품 +자체상품 등록 판매가능

25년 역사 브레인 TV 방송국소유 핫터그룹

대한홍삼주식회사/㈜핫터라이프 T.010-4480-0045